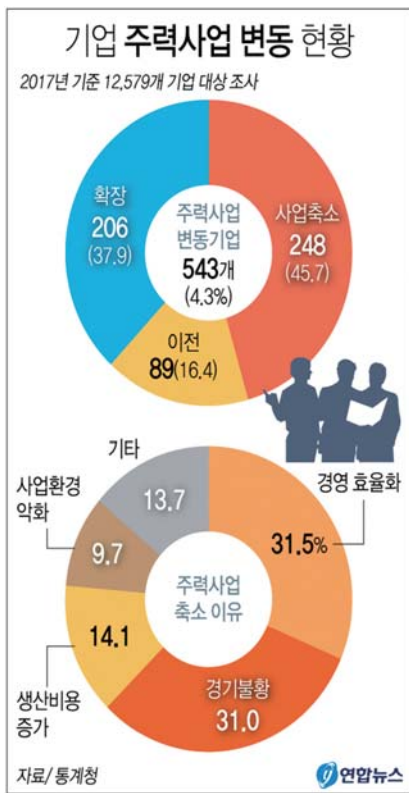


# “상·거래 개정안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 대한상의 “기업구조개선, 해외 투기자본 변질 우려” 쇼핑몰 규제 등 시장 경직...국회 ‘신중 검토’ 촉구

국회가 각종 상·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자칫 해외 투기자본에 부당 이익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경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국회에 “기업 자율과 시장규범에 맡기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에 대한 ‘신중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선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의무화한 나라가 사실상 없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2~3대 주주나 해외 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체도의 기본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어긋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단기 실적주의와 배당 우선주의 등으로 미래주익창출을 위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기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 실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의무화한 나라가 사실상 없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2~3대 주주나 해외 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체도의 기본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어긋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단기 실적주의와 배당 우선주의 등으로 미래주익창출을 위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기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의견 발생 시 조정 방안과 고발 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한상의는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자본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공인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대주주의 권법 지배력 확대 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과잉 규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민 기자



## ‘마일리지로 떠나는 일본여행’ 대한항공, 31일까지 프로모션

대한항공은 본격적인 겨울 성수기를 맞아 고객들의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금 일본에 가면 보너스 페이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31일까지 한달 동안 부담 없는 겨울 단거리 여행지로 선호도가 높은 일본 노선의 마일리지 좌석 승급,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탑승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모션에 응모한 고객에게는 사용한 마일리지의 10%가 고객 계좌로 지급되며, 프로모션을 통해 적립된 페이백 마일리지는 새로운 유효기간이 설정돼 소멸 기한이 임박한 마일리지를 사용한 고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프로모션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com)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용현 기자

## ‘무주공산’ JB회장...송중욱 ‘다크호스?’

“그룹 계열사 임원도 후보 자력”  
내년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한 JB금융그룹 회장이 연임 용퇴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JB그룹 회장 추천위원회 의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JB금융그룹 내규상 계열사 임원도 회장 추천후보에 포함될 수 있어 그룹 주력계열사인 광주은행 송중욱 은행장(사진)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JB금융그룹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이사 6명)를 구성해 차기 회장 후보 선출 논의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JB금융의 최대주주인 삼양그룹 김연수 창업주의 손자이다. 지난 2013년 JB금융 회장에 올라 이듬해인 2014년 광주은행을 공식 인수했다. 또 2016년 캄보디아 프놈펜산업은행(PPCB)을 인수하고 지역금융사로써 해외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평가를 받아 당초 연임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 회장이 ‘용퇴’를 선택함에 따라 그 내부 구조와 계열사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광주은행을 지역 대표은행으로 견인한 송중욱 광주은행장의 거취는 연말 지역 경제계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회장 추천위 후보군에 포함될만큼 송 은행장이 그동안 성과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지역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송 은행장이 광주상공대상 수상과 경영실적·지역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와 회장 추천위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이 어떻든 그룹 최대주주인 삼양사 의중을 따라 후임 회장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광주은행은 최근 그룹 내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업계 분위기와 달리 은행 내부 동요는 없다”며 “송 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3월로 정해져 그동안에는 경영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에 따라 그 내부 구조와 계열사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광주은행을 지역 대표은행으로 견인한 송중욱 광주은행장의 거취는 연말 지역 경제계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회장 추천위 후보군에 포함될만큼 송 은행장이 그동안 성과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지역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송 은행장이 광주상공대상 수상과 경영실적·지역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와 회장 추천위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이 어떻든 그룹 최대주주인 삼양사 의중을 따라 후임 회장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광주은행은 최근 그룹 내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업계 분위기와 달리 은행 내부 동요는 없다”며 “송 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3월로 정해져 그동안에는 경영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코스피가 35.07포인트 오른 2,131.93으로 장을 마감한 3일 국내 한 금융권 딜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암뉴스

## 코스피 ‘미중 휴전’에 2,130선 회복

국내 증시가 3일 미·중 무역 협상 호재로 2,13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07포인트(1.67%) 오른 2,131.93

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10월 22일(2,161.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수는 30.92포인트(1.47%) 오른

2,127.78에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추가 관세 부과를 멈추고 3개월간 협상을 벌이기로 ‘일시 휴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민 기자

## 대우위니아, 김혁표 신임대표 선임

대우위니아는 김혁표(사진) 전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우위니아 관계자는 “이번 선임은 전임 김재현 대표이사(사)의 임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김혁표 전무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혁표 전무는 1962생으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와 헬싱키대 MBA를 졸업했으며, 동부대우전자(現 대우전자) 상품기획팀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우위니아는 2019년 1월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혁표 전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

# 함평생비빔밥

함평생고기비빔밥은 푸짐하게 들어가는 한우생고기와 데친 야채, 소 뼈를 우려낸 맑은 선짓국과 삶은 돼지비계가 곁들여 나온다. 생고기 비빔밥과 함께 나오는 맑은 선짓국과 삶은 돼지비계는 생고기비빔밥의 고소한 맛을 더하는 함평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문화이기도 하다.

**함평생비빔밥 어울림한마당 축제 개최**

일자 : 2018. 12. 7. (금), 장소 : 함평 5일시장 내 식재료 센터